

누구든 감탄을 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대상이 되면 우쭐한 기분마저 든다.

체감의 정도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정도와 크게 다르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탄복이기 때문에 감탄을 하거나 그 감동을 받게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기를 하는 선수는 관전하는 사람들의 응원과 감탄에 힘을 얻는다고 한다. 관중들이 손뼉을 치면서 '와~' 하고 감탄의 탄성을 지르면 경기장에 선수는 자신도 모르게 힘이 솟아나 진행되는 경기는 훨씬 박진감 있게 전개되고 좀더 나은 경기를 위해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는다. 관중객들은 그러한 선수의 일거수일투족에 열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응원과 함께 하는 관전의 묘미가 아닐까 싶다.

최근 TV에 방영된 명지대 김정운 교수의 감탄에 대한 강연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들도 칭찬과 감탄을 먹고 자란다고 한다.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배내 몸짓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신기한 듯 놀란다. 그 아이가 처음 웅얼어하고 방긋 웃거나 기어 다니고 걸음마 할 때도 엄마와 아빠는 그저 신기해서 어쩔 줄 모른다. '아이고, 우리 아가 참 잘 한다.' 아이는 그 감탄과 놀라움에 따라 해시방글거리며 가까운 사람들의 탄성과 기쁨을 먹고 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그저 신기하고 기쁘고 놀

이선국 칼럼

칼럼위원(시인, 죽왕면장)



감탄의 미학

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연신 감탄하고, 아이는 그에 반응하면서 자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을 하는 연사도 청중의 감탄과 동조에 반응한다. 연사와 청중이 혼연일체가 되고 상황에 따라 반응하고 그 내용에 공감할 때 그 강연은 성공적이라고 말한다. 반대로 무반응 청중의 강연은 무기력할 뿐만 아니라 청중에게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한다. 오히려 지루함만이 기억에 남을 뿐이다. 이처럼 연사는 청중의 감탄과 감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연사는 청중의 감탄과 감명을 얻기 위해 부단히 애쓴다.

영어 생활권 외국인들은 감탄의 대명사인 Wonderful을 입버릇처럼 달고 산다. 작은 놀라움과 감동에도 원더풀을 연발하는 것이다. 그 감탄은 사안에 대한 감동의 묘미를 더하고 어색한 분위기마저 부드러

게 한다. 때로는 그 외국인의 원더풀이 과장된 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현상에 대한 인상을 가감 없이 솔직한 감성을 그대로 표출한다는 느낌이 더 옳을 것이다. 사실 외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원더풀의 의미를 우리말로 적절한 표현을 찾기 쉽지 않다. 우리의 경우에는 솟구치는 감흥을 절제하다가 흥이 오르고 감동의 분위기에 빠져들면 으쓱으쓱 어깨춤과 덩실덩실 엉덩이춤을 추면서 반응하기도 한다.

이렇게 인간이 다른 포유동물과 다른 이유는 감탄을 할 줄 안다는 것이다. 감탄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되었다고 김 교수는 밝히고 감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감탄과 칭찬이 없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누군가가 인정하

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은근히 마음 상하고, 설상가상으로 집에 돌아와서 바가지라도 긁히는 날이면 최악이다. 그 속상하고 부족한 마음을 메우기 위해 남자들은 흐릿한 조명이 흔들거리는 술집으로 향한다. 그곳에서 예쁜 언니들이 박수도 쳐주고 '오빠 멋쟁이~' 기타 등등 입에 바른 감탄사를 연발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는다고 말한다.

또 산에 오르는 이유에 대해 산길을 고집스럽게 올라 산정에서 느끼는 희열과 기쁨을 만끽하고 '야~호~' 하고 시원하게 외치는 쾌감을 느끼기 위해 산을 오른다고 한다.

그리고 여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 지친 삶을 재충전하고 바로 자신에게 스스로 감동을 느끼기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감동과 감탄을 얻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감탄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지금부터 주위의 모든 것에 감동하고 범사에 감명 받는 삶의 지혜를 갖는 것이 어떨까?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감동하고 세상의 모든 존재에게 희망의 감탄사를 날리는 것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확정판결로 인한 채권이 10년된 경우 그 소멸시효 연장 방법

문) 저는 12년 전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갚지 않으므로 변제기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갑소유의 재산이 없어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한달 후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를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 판결에 의한 채권을 그 소멸시효기

간인 10년이 가깝도록 강제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여서 강제집행의 실시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었다면 그 이전에 강제집행의 실시가 가능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효중단을 위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을 위한 동일한 내용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집행

을 하지 못한 채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상청구를 다시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이미 받은 승소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재판상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며, 그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새로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진행하게 되므로,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 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간 연장받는 효과를 갖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확정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새로운 소송의 판결은 종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새로운 소송에서 귀하가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투고 / 생명을 살리는 연기감지기

할머니 오늘 집에 계세요!
"응 오전에 보건소에 갔다 오고나서 오후에는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오후 2시쯤에 방문할게요. 어디 가 지마시고 꼭 계세요!
"알았어~ 뽀뽀거리는 소리가 귀찮으니 뽀뽀와 고쳐줘"
"예~."

어렵게 통화하고 나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해준 관리대상을 확인해보니 금호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72세 000할머니다. 분부상황실로부터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꾸 경보음이 울린다는 민원 신고건에 대하여 할머니와 통화한 결과 지난해에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무료로 설치해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건전지 유효기간이 도래되어서 경보음이 울리는 것 같았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의 역점사업인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개인주택에 대하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료로 설치한지 벌써 7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불철주야 화재진압? 구조 그리고 화재 예방 등 격무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관들은 한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휴일도 반납하고 이렇게 주위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화재와 같은 위험 속에서나마 안심하게 지낼 수 있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또 사후

관리까지 해주고 있다.

사실 최근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개인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가 부쩍 늘어가는 추세이다. 특히 주택화재는 신속한 피난과 진화가 가장 중요한데 가정용 소화기는 초기화재에 있어서 소방차 한대이상 성능을 발휘하고 가격도 저렴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시 심야에 잠을 자고 있는 가족들에게 즉시 대피하라는 경보음을 울려주어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가정용 피난시설 장비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시설에는 피난을 알려주는

경보시설이나 단독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지만 개인 가정주택에는 소방법상 설치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화마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미 선진국인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연기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인명피해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위협 받았을 때는 이미 늦다. 일본발 지진해일 쓰나미와 방사성 노출에 지구적 안전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주변에 있는 안전시설 장비를 점검하고 부족하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시민들의 지혜인 것이 아닌가?



속초119구조대장 소방위 장충열